"전쟁중에도 대화 필요… 5·24도 대화로 풀어야"

〈대북 제재조치〉

박대통령, 2차 통일준비위 '평화통일 액션플랜'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최근 대화와 긴장 국면을 오가는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관련,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는 지속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평화통일 액션플랜'의 조속한 설계와 추진을 통일준비위원회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24(대북 제재)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5·24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측의 총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 지속'을 강조하는 한편 천안함 폭침 후 포괄적 대북 제재인 5·24조치 문제까지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힘에 따라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달말~11월초로 예정된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의 주의제가 5·24 조치에 관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돼 왔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의 활동방향과 관련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 세부방안 마련 ▲평화통일 헌장 제정 준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 추진 ▲통일한반도 달성을 위한 주변국 설득 등을 제시했다.

DMZ 공원 건설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원 후보지 선정에 본격 착수하고 친환경 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작업, 주변 도로 정비 등 연계발전 계획 등을 추진해 북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화통일 헌장 제정에 대해서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 국민이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통일 이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감있는 내용을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등을 위해 14~17일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해 나폴리타노 대통령 및 마테오 렌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지난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교황을 예방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일준비위원회의 주재하는 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반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대북전단 필요땐 안전조치 … 살포 제한 시사

北, 연일 대남 압박 … 삐라 중지 실제적 조치 요구

정부는 13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 "실제 전단을 향한 북한의 총격이 있었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우려를 고려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의)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우리 (정부) 인원이 해당 단체를 설득해 귀가시키는 안전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 앞으로 필요할 때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이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뒤 연천 등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당분간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 대북전단 살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대변인은 "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어서 정부가 강제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측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소위 '기구 소멸 전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통문의 핵심 내용은 삐라(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바꿔 말하면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에 대한 공중요격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내외의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인간쓰레기들의 삐라 살포 광란을 중지시키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며 남한 당국을 압박했다.

신문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대범한 용단으로 마련된 대화 분위기는 응당 고조돼 긴장 완화와 북남관계의 획기적 발전에로 이어져야 한다"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자면 정세 파국의 근본 요인으로 되는 비방중상과 온갖 자극적인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행동 여하에 따라 고위급접촉을 비롯한 남북 대화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7곳 국제조달시장에 개방한다

정부가 서울메트로 등 지방공기업을 국제 조달시장에 개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정된 정부조달협정 국내 시행을 앞둔 준비 절차이지만, 야당이 의정서 비준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국제입찰 실시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과 국제입찰 절차를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1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가운데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가 국제입찰 대상 기관이 된다. 지방공기업은 현재 국제입찰 대상 기관이 아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7개 도시철도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용역·공사를 조달할 때 국제입찰을 해야 하고 입찰에서 국내외 응찰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연합뉴스

상하수도 개발사업 등 전남도, 3671억 확보

전남도는 13일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년 상수도분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국비 762억원, 하수도분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8개 사업에 국비 2909억 등 모두 3671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131억원보다 17.2%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 상수도분야 주요 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1개소 551억원,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16개소 79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67개소 93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9개소 1082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3개소 536억원,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10개소 315억원, 도시침수예방사업 8개소 416억원 등이다.

이 중 도시침수예방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피해 및 하수 월류로 인한 오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된 예산에 대해 2015년 상반기에 예산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수도관·하수도관 등 주요 자재 선정 시 도내 생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또 민선 6기 상수도·하수도 보급률을 각각 현재의 91.4%와 90.3%에서 더 높이기 위해 위해 오는 2018년까지 국비 1조4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公 남악 골프연습장 182억원에 중흥건설에 매각

전남개발공사가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에 운영중인 골프연습장을 182억원에 중흥건설에 매각했다.

13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중흥건설과 골프연습장인 '남악골프클럽'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격은 감정평가액인 182억원으로 결정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자산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난해 남악골프클럽 매각을 추진했지만 2차례 공개 입찰에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중흥건설은 계약금으로 매매가격의 10%를 완납했으며 향후 3년 동안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악골프클럽 운영은 잔금이 완납되는 시점까지 전남개발공사가 맡게 된다.

2011년 3월 문을 연 남악골프클럽은 부지 2만8995㎡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건축 연면적 3791㎡)로 직선거리 170m에 90타석을 갖추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영산강휴게소 부지(1만8000㎡)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중으로, 2차례 공개 입찰에서 유찰돼 조만간 감정평가액 77억원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에 나설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